



2019 빛낸 류현진

LA다저스 최고 선발 등판 경기 톱10 중 3경기 5월13일 워싱턴전 공동 2위...8이닝 무실점 역투

2019년 LA 다저스 최고의 선발 등판 경기 톱10 중 류현진(32)이 3경기에 이름을 올렸다. 다저스 구단 소식을 전하는 다저인사이더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2019년 다저스 최고의 선발 등판 경기 톱10을 발표했다. 류현진은 공동 2위, 공동 4위, 9위 등을 차지했다.

순위는 세이버 매트릭스의 개념을 만들어낸 빌 제임스가 고안한 '게임 스코어' 기준으로 선정됐다. 게임 스코어는 경기별로 투수의 활약을 평가하는 기록으로 기본점수 50점에 활약 여부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결정된다.

류현진 등판 경기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5월13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다. 게임 스코어 88점을 기록한 이 경기에서 류현진은 8이닝 1피안타 1볼넷 9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공동 4위에 오른 경기(게임 스코어 85점)는 5월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으로 당시 류현진은 9이닝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봉승을 거뒀다.

9위는 9월15일 뉴욕 메츠전(게임 스코어 79점)이다. 당시 류현진은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7이닝 2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활약했다.

1위는 워커 볼러가 차지했다. 볼러는 6월22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9이닝 3피안타 16탈삼진 2실점을 기록, 게임 스코어 89점으로 1위에 올랐다.

한편 류현진은 다저스 선발 중 가장 높은 평균 게임 스코어를 기록했다. 류현진의 2019시즌 게임 스코어는 60.2점으로 2위 클레이튼 커크(59.7)보다 0.5점 높았다. 류현진의 게임 스코어는 메이저리그 전체 6위이기도 하다.

박인비,美 매체 선정 최근 10년간 LPGA '최고 선수'



박인비(31·KB금융그룹)가 최근 10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위에 올랐다. 미국 골프전문매체 골프워키는 1일(한국시간) 최근 10년간

대회에서 3연승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박인비의 뒤를 이어 청야니(대만)가 2위를 차지했고 리디아 고(뉴질랜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이 차례로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6위는 렉시 톰슨(미국), 7위는 평산산(중국), 8위는 크리스티 커(미국)다. 9~10위에는 수잔 페데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106주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청야니(대만)-리디아 고(뉴질랜드)-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순

LPGA 투어에서 맹활약한 선수 1~10위를 선정했다. 골프워키는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인 박인비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6주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최근 10년 사이에 메이저 6승을 따냈다. 2013년에는 메이저

르센(노르웨이),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자리했다. 한편, 최근 LPGA투어는 2010~2019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가리는 팬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16명의 후보 중 박인비에 1번 시드를 부여했다. 투표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2020년 1월 공개된다.

소사·알칸타라 등 검증된 외국인투수, 재취업할 수 있을까?

대다수 구단 새 얼굴 갈망, 냉정한 평가 쏟아져 시즌 중후반 대체선수 가능성은 남아 있어

헨리 소사, 라울 알칸타라, 세스 후랭코프 등 KBO리그에서 검증된 외국인투수들이 시장에 나왔다. 두 자릿수 승수, 150km 강속구 등 리그에서 이미 실력이 입증된 이들 외국인투수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0일 2020년 보류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총 71명이 이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몇몇 굵직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KBO리그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은 강속구 투수 소사(SK), 첫 시즌에 11승(11패)을 기록한 알칸타라(KT), 2018년 다승왕 후랭코프(두산), 대체선수로 합류해 강한 인상을 남긴 좌완투수 크리스천 프리드리크(NC) 등 외국인선수 10명은 구단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자유의 몸이 된 이들은 타 구단, 타 리그 제안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들이 KBO리그의 부름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직 대다수 구단이 2020시즌 외국인선수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일단 10개 구단 모두 적극적으로 해외 리그에서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다. 도

미니카공화국, 미국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선수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한 구단 관계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선수들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구단별 속도차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이들 보류선수에서 제외된 외국인선수들이 부름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구단들 모두 새 얼굴, 보다 강한 외국인선수 영입을 목표로 외부영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기존 구단에서 퇴출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는 높아진 연봉, 몸상태에 대한 우려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몇 년간 꾸준했던 몇몇 외국인선수는 가능성을 알아두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KBO리그 대표 외국인투수로 자리매김한 소사의 경우 여전히 150km 이상의 강속구가 매력적인데다 따로 적응기가 필요 없어 시즌 중반 이후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사의 경우 지난해 LG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더 이상 KBO리그에



서 커리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시즌 중반, SK는 물론 다수의 구단이 영입을 검토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KBO 리그를 끝으로 은퇴를 생각했던 소사는 미국 보다는 아시아무대에 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알칸타라 역시 충분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시즌 27경기에 출전해 11승1패 평균자책점 4.01을 기록한 알칸타라는 구위는 인정받았지만 상태를 유인할 만한 변화가 부족했고 시즌이 길어질수록 페이스도 떨어졌다. 잔부상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내년 시즌 5강 이상을 꿈꾸는 KT는 과감히 새 외

국인투수 교체를 선택, 일찌감치 쿠바 출신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영입했다. KT는 남은 윌리엄 쿠에바스와 재계약에 대해서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소사가 꾸준히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과거 에릭 해커, 더스틴 니퍼트처럼 사실상 은퇴수순을 밟고 있는 검증된 외국인투수 사례도 존재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KBO리그 구단들은 새 외국인선수, 새 분위기를 갈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소사조차 올 시즌 SK에서 보여준 모습에서 실망감이 늘었다는 평가가 많다. 문은 열려있지만 이들의 재취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승우, 첫 교체 명단 포함 속 결장

이승우(21·신트트라위던)가 벨기에 진출 후 처음으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결장했다. 팀은 헹크에 역전승했다.

신트트라위던은 1일 오전 4시30분(한국시간) 벨기에 헹크의 루미누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 17라운드 헹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이승우는 지난 8월30일 신트트라위던과 계약을 맺고 벨기에 무대를 밟았지만 당시 지휘봉을 잡고 있던 마르크 브라이스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3개월간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다. 최근 브라이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이날 교체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에서 나서진 못했다.

임대정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